

매번 틀리기는 하지만... 올해 '전북현대' 뭔가 수상하다

‘K리그최강’...10시즌 7차례 우승 트로피

최근 FA컵서 2부리그 6위 전남에 진땀 승

작금 K리그 최강 클럽이 어디냐는 질문을 던지면 심중팔구는 전북 현대라는 대답이 되돌아온다. 기록이 증명한다. 지난해까지 3연패를 포함해 근래 10번의 시즌 동안 무려 7차례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으니 ‘전북 시대’라는 표현도 무리는 아니다.

2020년 전북은 K리그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리그 4연패에 도전하고 있다. 역시 가능성은 높다. 지난해 치열한 우승경쟁을 펼친 울산 현대가 아니라면 마땅한 대항마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와 팬들을 막론한 공통된 견해다.

예상대로 잘한다. 12개 참가 클럽끼리 모두 1번씩 맞붙어 11라운드를 마친 현재 전북은 울산과 함께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조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매년 아킬레스건을 스스로 치유하고 끝내 우승하는 저력을 보여준 전북이라 선부러 전망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올해는 뭔가 수상하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전북은 지난 15일 오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남드래곤즈와의 2020 하나은행 FA컵 4라운드(16강)에서 연장전까지 치르는 고생 끝에 3-2로 승리, 8강에 올랐다.

전반 17분이라는 이른 시간에 이승기의 중거리포로 리드를 잡은 전북은 이후 수차례 도망감 기회를 놓치다 외려 후반 종료 직전 전남 이종호에게 동점골을 내줘 고생길을 걸었다.

연장전은 그래도 쉽게 가는 듯했다. 연장전반 6분 손준호, 4분 뒤 쿠니모토의 연속골로 낙담한 리드를 잡았다. 하지만 연장전반 13분 전남 하승운에게 만회골을 내주며 긴장의 끈을 풀지 못하고 결과가 어찌될지 모를 승부차기만은 막기 위해 끝까지 혼신의 힘을 써야 했다.

어떤 팀이든 이변을 만들 수 있는 단판 토너먼트이지만 분명한 전북의 고전이었다고 진땀승이었다. 호남 더비를 운운했으나 전남은 현재 K리그2(2부리그)에 있고 그중에서도 6위에 머물고 있다. 1부리그 클럽끼리 맞붙은 매치업보다는 수월한 조합이었는데 에너지를 많이 썼다.

FA컵의 비중을 작게 생각해 1.5군을 내세운 것도 아니다. 이날 전북은 송범근 골키퍼를 시작으로 김진수, 김민혁, 손준호, 무릴로, 김보경, 이승기, 한교원, 조규성 등 베스트에 가까운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규리그는 짧고 AFC 챔피언스리그는 재개될 기미조차 없다. 전북 입장에서는 FA컵을 놓칠 수 없는데 혼쫓아 졌다. 전남전만 유난했던 것도 아니다.

정규리그 11라운드를 마친 현재 전북은 8승1무2패 승점 25점으로 울산(승점 26)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흐름이 좋지 않다. 지난 5일 상주상무 원정에서 0-1로 패했던 전북은 지난 11일 성남 FC와의 홈경기에서도 2-2 무승부에 그쳤다. 먼저 2골을 허용하고 어렵사리 무승부를 만든 내용이었다. FA컵 전남전을 포함해 3경기 연속 ‘최강 전북’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가장 약해진 부분은 ‘타공’에 어울리지 않는 득점포. 날개 공격수 한교원(5골)과 베테랑 이동국



K리그1 4연패에 도전하는 전북현대. 여전히 강하지만, 또 어느 때와는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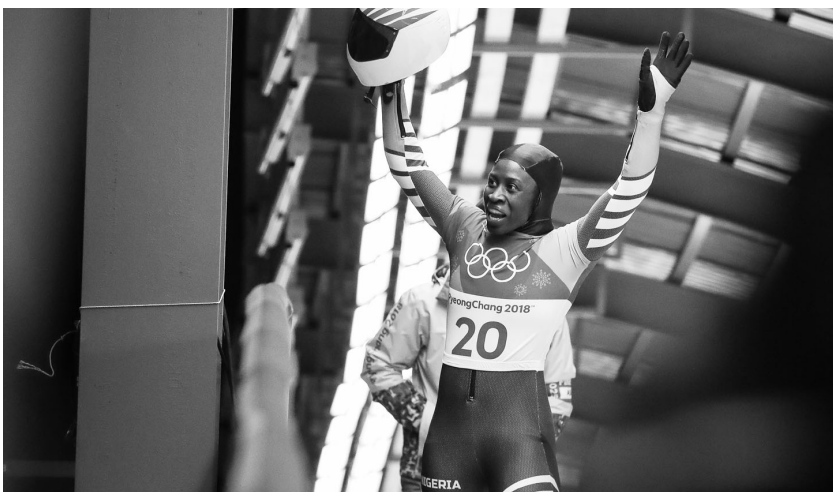
(4골)이 나름 몫을 하고는 있으나 상대에게 공포감을 줄 해결사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안팎의 중론이다. 여름이적시장을 통해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 구스타보와 프리미어리그 스완지 등에서 뛰던 원어모 두 바르를 동시에 수급한 것 역시 결정력을 높여야 한다는 진단 때문

이다. 위낙 개개인의 기량이 출중해 어지간한 고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전북이지만, 지난 3연패 기간에 비해서는 힘이 떨어져 보이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더 강해진 울산과 견주면 더 불안

물론 아직 시즌은 많이 남았다. 구스타보와 바르가 구단의 기대대로 실력을 발휘해준다면 지금의 우려도 금세 ‘불필요한 걱정’으로 그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사상 초유의 4연패는 높은 벽이 될 수도 있다. 적어도 지금 흐름은 울산이 나와 보인다.

올림픽 스타들, 에어비앤비 ‘온라인체험’ 등장

2020 도쿄올림픽 대체할 온라인 여름 축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된 올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스켈레톤 여자 3차 주행을 마친 후 관중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는 시미델레 아데아그보(나이지리아)

림픽의 감동을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다.

에어비앤비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와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진행하는 온라인 체험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올림픽·패럴림픽

출전선수가 진행하는 100개의 체험을 마련해 당초 ‘2020 도쿄올림픽’ 대회 개막식이 열릴 예정이었던 오는 24일부터 5일간의 여름 축제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 게이아 에어비앤비 공동창업자는 “스포츠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을 감상할 수 없게 된 지금, 올림픽과 패럴림픽 정신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여름 축제

를 즐길 기회다”며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이 최고의 선수들과 서로 대화를 나누며 내년에 열리는 올림픽을 기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각기 다른 시간대의 지역에서 5일간의 축제하는 동안 여러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체험을 준비했다.

체험 예약은 22일부터 가능하며, 온라인 체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각 체험이 에어비앤비와 올림픽 유튜브 채널에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돼 실시간 혹은 녹화본으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체험은 축제가 막을 내린 뒤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대표적인 체험으로는 △패럴림픽의 영웅인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의 ‘패럴림픽 출전 선수에게 배우는 긍정적 사고’ △올림픽 선수 시미델레 아데아그보(Simidele Adeagbo)의 ‘올림픽 참가자와 함께 하는 새로운 도전’ 등이 있다.

다양한 종목의 유명 스포츠 선수가 참여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전남체육회, 하반기 전통스포츠보급사업 공모

줄다리기·줄넘기 선정...6천6백만원 사업비 확보



전라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가 코로나19 파장에도 불구하고 선진 체육행정을 구현하며 하반기 첫 공모사업으로 전통스포츠보급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전라남도체육회는 14일, 대한체육회로부터 2020년도 전통스포츠 보급사업 최종 선정 결과를 받고, 줄다리기와 줄넘기 종목이 선정돼

6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통스포츠보급사업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통종목을 스포츠 활동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종목 활성화에 기여할 우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줄다리기와 줄넘기 종목에 선정

된 전남은 앞으로 각종 대회와 강습, 체험박람회 등을 개최하며 도내 전통스포츠 저변확대와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다시말해 전통종목 운동회와 순회 체험마당을 통해 전문화 인식 확산 및 계승 발전, 유소년 및 지역민의 건강한 인성 개발에 기여한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체육회는 줄다리기, 줄넘기 협회와의 긴밀한 공유를 통해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행할 계획이다.

김재무 회장은 “전통스포츠보급사업은 우리나라 고유의 스포츠인 전통스포츠를 소중하게 여기며 앞으로 계승해야 할 사명감을 갖게 하는 데 있어 좋은 사업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종목의 전통스포츠보급을 통해 유소년 학생들에게 전통 교육 기회 제공 등 꾸준히 저변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김세영·최운정, 미국 코다 자매와 스크린골프 맞대결

골프존 유튜브·네이버TV 채널 라이브 통해 생중계



김세영(27·미래에셋)과 최운정(30·볼빅)이 미국의 제시카 코다(27), 넬리 코다(22) 자매와 스크린골프에서 격돌한다. 골프존은 16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챔피언들이 참가하는 ‘골프존 LPGA 스킨스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20일 밤 8시30분 대전 유성구 소재 골프존 조이마루에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루시에 위치한 골프장 팝스트로크(Popstroke)에서 동시에 열린다. 골프존의 스크린골프 시스템으로 대회장을 화상으로 연결, 실시간 생중계 된다. 지난 5월 골프존은 박인비

(32·KB금융그룹)와 유소연(30·메디힐),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23·하나금융그룹), 페닐라 린드버그(34·스웨덴) 등이 참가한 스크린골프 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번 대회는 스킨스(홀마다 걸린 상금을 홀의 승자가 가져가는 경기 방식) 게임의 변형 포스트라운드 36홀 팀 매치플레이로 진행된다. 우승 상금은 5만달러로,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세영은 “이번 대회를 통해 LPGA투어 동료들과 함께 좋은 경험도 하고 뜻깊은 기부에도 동참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필드 골퍼와는 또 다른 스크린골프만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란다. 좋은 플레이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외국인 선수 처음”...두산 ‘알칸타라’ 향해 엄지척

“선수단 융화 놀랐다”...한국어도 열심히 배워

두산 베어스 간판타자 박건우가 팀 에이스로 거듭난 외국인 투수 라울 알칸타라 이야기가 나오자 엄지척을 치켜세웠다. 호수비 관련 재미있는 일화도 소개했다.

박건우는 지난 15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SK 와이번스전에 1번 우익수로 선발출전해 결승홈런 포함 4타수 2안타로 활약했다. 알칸타라는 이날 경기 선발투수로 등판, 6이닝 8피안타 6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했다. 두산은 두 선수의 활약 속 SK를 7-2로 제압했다.

박건우는 지난 5경기에서 무려 9안타를 쏟아내는 절정의 타격감

을 자랑했다. 개인 8연승에 성공한 알칸타라는 시즌 9승을 수확하며 에릭 요키시(키움)와 함께 다승 부문 공동선수를 유지했다.

박건우는 15일 경기가 끝난 뒤 알칸타라에 대해 “이런 외국인 선수는 처음 봤다”고 혀를 내둘렀다. 알칸타라의 선수단 융화가 놀랐다는 설명이었다.

박건우는 “(알칸타라가) 한국어를 정말 열심히 배우려 한다. 장난도 잘 치는 편으로 야침에 만나자마자 장난을 건다. 그런데 또 (선수들이) 부진한 시기에는 (이를 알고) 조심하더라”면서 적응력을 소개했다. 이어 두 선수 사이 수비 관련

일화도 전했다. 이날 경기 3회초, 0-2로 선취점을 내준 두산은 계속된 2사 2루 위기 때 알칸타라가 채태인에게 우익수 앞 안타를 허용했다. 추가점이 예상된 상황. 2루 주자는 홈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나 우익수 박건우의 그림 같은 홈 송구가 이어졌고 홈에서 아웃 판정을 받아내 추가실점을 면했다. 흔들리던 알칸타라는 이후 감을 잡아 더 이상 점수를 내주지 않았다.

박건우는 “지난 키움전이었다. 알칸타라가 등관한 날 중견수로 출전해 실수를 했다. 그 이후 알칸타라가 수비 못 한다고 놀리더라”라고 떠올리며 “(수비에서) 무엇이라도 보여줘야 했다”고 설명했다.